

하·하·하

# “시원하고 유쾌하게 예술하자!”

여름을 밟아내고 초가을을 부르는 공연예술축제가 온다. 광주지역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축제인 '하·하·하(시원하고 유쾌하게 예술하자) 페스티벌'이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 공연장 활성화와 전문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선정돼 활동 중인 7개 예술단체가 '시원하고 유쾌하게 예술하자!'를 주제로 진행한다. 2019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상주단체들의 단독·합동공연, 경남 진주·대전 교류초청공연과 함께 야외특별무대에서 펼쳐지는 레크레이션과 경품 추첨, 아트 프리마켓 등이 어우러진 풍성한 1박2일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7개 상주단체는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혁신기와 발레, 연극과 타악 퍼포먼스, 오페스트라와 현대무용 등 서로 다른 장르가 호흡을 맞춘 합동 창작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2018년 전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경남 극단 현장의 마임극 '정크, 클라운'과 대전 대표 극단 아신아트컴퍼니의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정사초롱'이 시민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공연은 전석초대 및 좌석예약제로 진행된다.

페스티벌의 시작은 경남 진주 극단 현장의 낸버벌 코믹 놀이극 '정크, 클라운'이 연다. 극단 현장과 마임아트 고재경의 협업으로 탄생한 '정크, 클라운'은 숙련된 팬터마임과 고물을 이용한 변용놀이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극이다. 버려진 선풍기 날개가 헬리콥터가 되고, 고장 난 청소기와 호스로 태풍과 물을 만들고, 페트병과 찌그러진 냄비가 물고기가 되는 환상 속으로 들어간다.

1974년 설립된 극단 현장은 '일상의 경험을 무대 위로 가져가고 무대 위의 깨달음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순환'을 통해 관객과 소통해왔다.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극, 마임극, 음악극 등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최동식, 김진호, 박현민, 송광일 등이 출연하고 6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90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북구청소년수련관 상주단체인 아트컴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하·하·하' 페스티벌은 상주단체들의 단독·합동공연, 경남 진주·대전 교류초청공연과 함께 야외특별무대에서 펼쳐지는 레크레이션과 경품 추첨, 아트 프리마켓 등이 어우러진 풍성한 1박2일을 선사할 계획이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 광주지역 공연장 상주단체들의 축제 '하·하·하' 6일 개최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 7개 상주단체 합작**

**진주 극단·대전 아신아트컴퍼니 초청 공연도**

**야외특별무대 프리 콘서트·프리마켓 등 진행**

페니원은 한양에 사는 한량 박첨지가 광주 역사 속으로 떠나는 유랑을 떠나는 '포복절도'를 올린다. 전국 유랑을 떠난 박첨지가 맛의 고장 전라도 광주를 찾았다가 무등산 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80년 5월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해학적이고 은유적으로 풀어낸다.

아트컴퍼니원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를과 지역성을 담은 소재를 바탕으로 한 창작극을 제작 공연하고 있다. 연출 원광연, 조연출 박선주, 무대 진행 안소윤,

음향 이재훈, 조명 김종원이 맡고 박성용, 최진영, 정다현 등이 출연한다. 6일 오후 8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특별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주단체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그린발레단은 공연장과 장르를 넘어 '스트링&발레 판타지아' 무대를 꾸민다. 전국 최초·유일의 여성 전문음악단체로서 480여 회 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은 광주여

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젊은 감각과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레퍼토리와 함께 2012년부터 매년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창작발레로 화제를 모으는 그린발레단이 함께 한다.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스트링 오케스트라 연주로 레스피기의 '옛 춤곡과 아리아 3번 모음곡',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무곡'을 선보이고, 그린 발레단은 레오디리브의 '실비아' 중 피치카도 폴카,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춤곡으로 유명한 '왈푸르기스의 밤' 등에 맞춰 화려한 발레동작으로 무대를 수놓는다.

대전 대표 극단 아신아트컴퍼니는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과 '봄봄'을 소재로 유쾌한 마당극 형식의 뮤지컬 '정사초롱'을 선보인다. 동백꽃과 봄봄의 두 주인공이 각각 결혼에 성공해 한 달 한 시 같은 장소에서 혼례를 치른다는 상상을 입혀 '교과서 밖으로 뛰쳐나온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1920년대로 시간 여행 떠나는 분장과 의상, 신나는 마당극 형식의 노래와 안무도 흥을 더한다.

아신아트컴퍼니는 2017년부터 대전 중구문화원의 공연장상주단체로 선정돼 창작극 개발 및 유수 극단들과의 교류공연을 통해 관객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전문극단이다. 이인복 대표가 연출을 맡고 김성탁, 최민지, 김광원, 문혜인 등이 출연한다.

서구문화센터 상주단체 극단 눈다와 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전통문화연구회 얼쑤는 낸버벌 퍼포먼스 동화극 '할아버지, 저예요'를 무대에 올린다.

남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사)선율과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주단체 광주현대무용단은 어깨가 들썩이는 연주와 춤을 선사한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빛고을시민문화관 안팎에서는 공연 전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소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이동공연과 공연 체험 등이 진행된다. 페스티벌 개막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구성된 호남씨어터의 팝뮤지컬 갈라 콘서트 '올 숙업(All Shock Up)'과 함께 광주문화재단, 2019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가 함께하는 개막선언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로비 등에서는 7개 상주단체의 주요 작품 소개부스와 함께 목관4중주, 가족을 위한 연극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목공예·쪽염색·손수건·방향제 만들기 등 공예체험도 즐길 수 있다.

/오복 기자 boh@



문유미作 'Hair Action, 2011'.

/광주문화재단 제공

## 'The First Supper'

**퍼포먼스 아티스트 문유미 개인전**

지난 2006년부터 아시아 및 유럽의 여러 축제와 전시에 참가하며 행위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문유미 작가의 개인전 'The First Supper'이 오는 8일까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아트풀리곤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청년예술인장학지원사업인 이번 전시는 그동안 문유미 작가가 공연 형태로 관객을 만나왔던 것과 달리 발표작품 중 대표작을 선정해 퍼포먼스 아트 전시 형태로 선보인다.

최근 퍼포먼스 아트 전시는 대형 미술관에서 앞 다투어 열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페어에서도 별도 세션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대중이 퍼포먼스 아트를 접할 기

/오복 기자 boh@

## 6일 정율성음악축제 TIMF양상을 초청연주회

아시아 작곡가들이 창작한 음악의 가치를 조명하는 '정율성음악축제 TIMF양상을 초청연주회'가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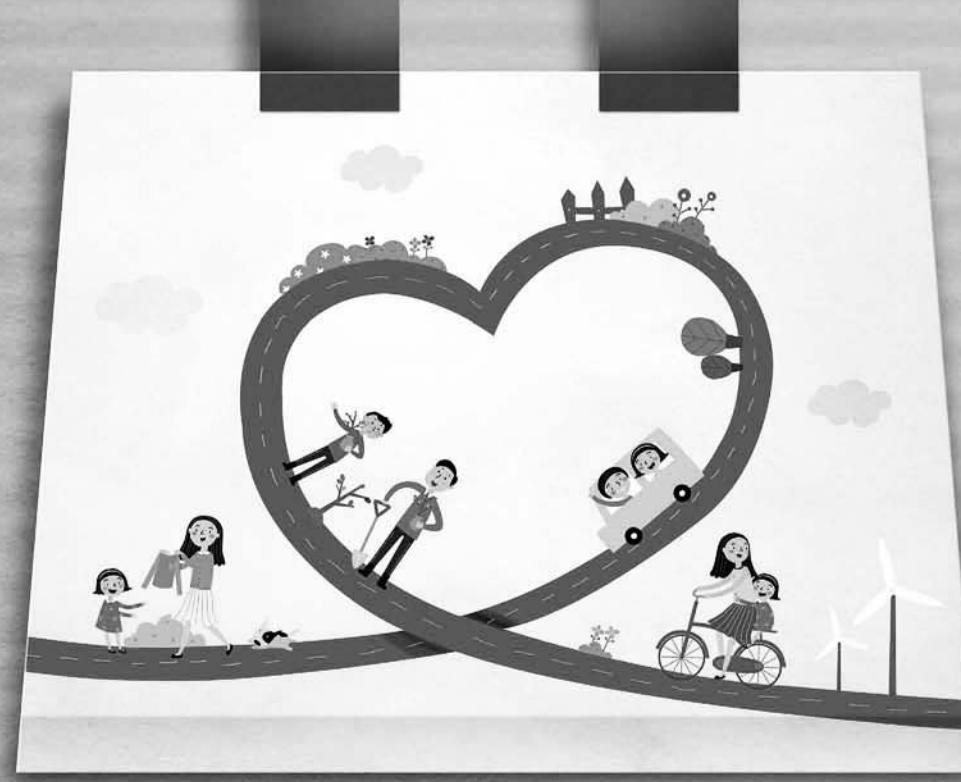


작곡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정율성과 윤이상뿐 아니라 국내외 저명한 작곡가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은 전석무료이며, 전화 또는 인터넷 사전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관람 문의는 (062) 670-7468로 하면 된다.

/오복 기자 boh@

## 재활용으로 지구를 살려요



# 자원순환